컴퓨터학부 2024052015 김동건

제목 :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내 인생 영화

서론 : 1. 누구나 학창 시절에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

본론 : 1. 영화를 떠올리면 나의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2. 영화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준다.

결론 : 1. ‘세 얼간이’를 떠올리면 나를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 보내며 현재의 인연을 상기시켜준다.

ㆍ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혹은 영화를 자주 관람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영화를 주로 관람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인생 영화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왜 그 영화가 인생 영화인가요? 사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영화를 직접 찾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저 같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 앞으로 말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영화를 보여주셨던 경험입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수업 시간이 한가로워지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수업 진도를 다 나갔다면 가끔 몇몇 선생님께서 영화를 내려받아 와서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화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영화를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화를 보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자는 사람들도 그냥 허락해 주고 넘어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화를 보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상황을 이야기 했냐면 앞으로 얘기할 제 인생 영화를 여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인 제 인생 영화 ‘세 얼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 제가 왜 인생 영화가 ‘세 얼간이’라고 했던 이유는 영화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 선생님께서 ‘세 얼간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인생 영화가 된 것이지 내용이 좋거나 구성이 좋아서 인생 영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영화의 내용과 구성은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3번에 나눠서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한 번, 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한 번. 처음 중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봤을 때는 그냥 흔하디흔한 수업 시간에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수업 시간에 다른 영화를 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음 영화 내용이 흥미롭네’, ‘오 이번 영화는 좀 긴데?’, ‘이렇게 길면 이거 잘하면 다 못 볼 수 있겠는걸?’ 등의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길었던 만큼 정말 예상했던 대로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그저 기억 속에서 흔한 수업 시간에 본 영화 1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게 되고 다시금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연히도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과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같은 분이셔서 이어서 ‘세 얼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문득 영화를 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내 주변에 친구들이 바뀌었네? 다들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곧 고등학교에 올라간다고 다들 자거나 영화를 그냥 보지 않고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영화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끝까지 이어서 다 본 영화 정도로 기억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친했던 친구들과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떨어져서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 시기가 오면 그저 자습 시간을 주거나 미리 선행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중에 사회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화는 우연히도 ‘세 얼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영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영화 화면을 보다가 문득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영화를 봤을 때 중학생이었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있는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내 주변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있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며 중학생 때 친한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세 얼간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당시에 있던 내 주변 환경과 친구들이 떠오르며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ㆍ 또한 ‘세 얼간이’는 현재 제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세 얼간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서 결말을 포함한 요약 영상으로 자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 순간 학창 시절이 떠오름과 동시에 제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귀었던 친구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 친구들 말입니다. 지금은 같은 학과에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와 만난 동기들이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공동 관심사를 통해 만난 제 주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만난 친구들과는 다르지만 그들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에게 학창 시절에 만난 인연뿐만 아니라 대학 와서 만난 인연도 나의 소중한 인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ㆍ 결론적으로 영화 ‘세 얼간이’를 우연히 보게 되거나 떠올리게 되면 먼저 저는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 저는 어느새 풋풋한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 고민하며 여러 영화를 고르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면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은 앞에 TV에서 영화가 나오자 다들 합죽이가 된 듯이 조용히 TV를 봅니다. 저 역시도 그들을 따라 TV를 바라봅니다. 다시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세 얼간이’를 고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를 볼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미 아무것도 안 들리는 채로 책을 보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학생 때와 다른 친구들이 제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영화를 고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주변에는 학창 시절 친구들이 없고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학창 시절 친구들뿐만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 얼간이’는 저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 얼간이’는 저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